

# 코로나19 비상,日훈련 중인 두산·삼성·LG 관참나

두산 미야자키, 삼성·LG 오키나와서 훈련

대구 연고 삼성 “오히려 한국 걱정하는 분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두산 베어스,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 등 일본에서 전지훈련 중인 프로야구 구단들의 상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현재 두산은 미야자키, 삼성과 LG는 오키나와에서 전지훈련을 진행 중이다. 호주에서 1차 캠프를 마친 두산과 LG는 각각 지난 23일 미야자키, 26일 오키나와로 이동했다. 삼성은 지난달 30일부터 줄곧 오키나와에 머무르고 있다.

다행히 미야자키, 오키나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덜한 지역이다. 일본에는 현재 8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요코하마항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 다이아몬

드 프린세스 탑승자를 제외하곤 전국 확산 규모가 크지 않다.

미야자키현에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오키나와현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3명이다.

미야자키 지역 방송사 미야자키 뉴스 UMK에 따르면 미야자키현 측은 “현재 감염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환자 수용 시설을 포함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현재까지 미야자키현 내에서 코로나19 상담은 369건이고, 그중 13건 검체 검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오키나와 지역 매체 오키나와타임스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잠시 머무는 동안 배에 타고 있던 승객을 태웠던 택시기사 2명, 농업



일본 미야자키에서 스프링캠프를 진행 중인 두산 베어스.



일본 오키나와에서 스프링캠프를 진행 중인 삼성 라이온즈.

에 종사하는 1명 등 현내에서 총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26일 보도했다.

아직까지 감염 위험이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본에 캠프를 차린 구단들은 ‘조심 또 조심’하는 분위기다. 마스크 착용, 손씻기, 위

출 자제 등 기본적인 행동지침 준수수는 물론 두산의 경우 숙소 입구에 열화상카메라까지 설치했다.

두산 관계자는 “아침 저녁으로 선수단 몸 상태와 의심 증상 발현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며 “아직 미야자키현에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

지만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삼성 관계자는 “오키나와현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지만 선수들 모두 감염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오히려 대구를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 기성용, 마요르카서 10번 단다...“어릴 때 꿈 이뤄졌다”

스페인 프로축구 입단... “1부 잔류 위해 최선 다할 것”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요르카에 입단한 미드필더 기성용(31)이 “어릴 때부터 스페인에서 뛰고 싶었던 꿈이 이뤄졌다”면서 기쁜 소감을 전했다.

기성용은 26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마요르카에서 뛰게 돼 영광스럽다”며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에서 뛰는 것을 꿈꿔왔다. 최고의 선수들과의 경기를 기대하고 있다. 꿈

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구단 훈련에서 등번호 10번이 적힌 유니폼을 받았다. 종전 10번을 달았던 마요르카 공격수였던 알렉스 알레그리아는 지난달 2부리그 엑스트라마두라로 임대된 상황이었다.

기성용은 지난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팀을 모색해 왔다. K리그 복귀도 타진했지

만 무산됐고, 이후 스페인으로 방향을 돌려 메디컬 테스트 등을 거쳐 마요르카 입단이 확정됐다.

계약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단기 계약이다.

기성용은 “일단 팀이 1부리그에 잔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팀에 합류해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기성용의 새 소속팀 마요르카는 이번 시즌 승점 22(6승4무15패)로 강등권인 18위에 자리하고 있다. 16~17위에 자리한 에이바르(승점 24), 셀타 비고(승점 24)와는 2점 차이로 힘겹게 강등권 탈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기성용은 팀 동료이자 일본인 출신 공격수 구보 다케후사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그는 “한국 팬들이 마요르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보는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다. 희망적으로 우리는 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마요르카는 3월 2일 헤타페와 홈 경기를 갖는다.

뉴스1

## 배구 코트에는 스파이크소리와 선수들 외침만

코로나19 여파 무관중 경기

프로배구 사상 첫 무관중 매치에서 스파이크와 선수들의 고향 소리가 경기장을 울려 퍼졌다. 선수들을 향한 팬들의 응원 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25일 한국전력과 삼성화재의 경기가 열린 수원실내체육관에서 한산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사상 초유의 무관중 경기가 결정되면서 이날 체육관에는 방송 관계자와 취재진, 최소한의 운영 인력만 있었다. 운영인력보다 무관중 경기를 취재하러 온 미디어 관계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 보였다.

한국전력과 삼성화재도 모두 최소한의 사무국 관계자들만 현장을 찾았다.

지난 23일 한국배구연맹(KOVO)은 25일부터 당분간 모든 경기를 관중 없이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삼성화재-한국전력전은 역사적인 첫 무관중 경기로 기록됐다.

전례가 없던 일이기에 이날 현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 한국전력 빅스톰과 삼성화재 블루팡스의 경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을 찾은 배구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코칭스태프, 선수단 모두 긴장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코트 위의 열기는 뜨거웠다. 선수들의 “집중해”란 외침이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들렸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관중이 없어 아쉬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홈 팀인 한국전력은 선수들 응원을 들며 분위기를 띄웠지만 역부족이었다.

전광판을 통한 비디오 감독도 평소와 똑같이 진행됐지만, 지켜보는 관중은 없었다.

이날 경기에서는 삼성화재가 한전을 10연패의 수렁에 밀어 넣으며 세트스코어 3-2(25-23, 24-26, 22-25, 25-10, 15-11)로 이겼다.

장병철 한전 감독은 “무관중으로 하다보니 몰입도가 떨어지고 분위기가 아쉬웠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신진식 삼성화재 감독도 “관중이 없으니 선수들 집중력이 잘 안 올라왔다. 전체적으로 여수선한 분위기라 연습할 때 더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삼성화재 박철우는 “얼른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 돼서 팬들과 함께 경기장에서 호흡하고 싶다”고 밝혔다.

## 무소속 강정호, ML 미계약자 ‘베스트9’ 선정...7번 3루수

미국 애리조나 KT 캠프 참가해 빅리그 복귀 노려

현재 소속팀이 없는 강정호(33)가 미국 현지 매체가 선정한 FA 시장에 남아있는 선수 베스트9에 뽑혔다.

메이저리그를 전문으로 다루는 엠엘비트레이드루머닷컴은 25일(한국시간) FA 시장에 남은 선수 중 베스트9을 선정했다. 팬들에게 잘 알려진 선수들을 위주로 꼽으며 총합히 26인 엔트리에 포함될 만한 선수들로 라인업을 꾸렸다.

선발 라인업 중 강정호는 7번 3루수로 이름을 올렸다. 매체는 “강

정호는 뛰어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살리지 못 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피츠버그에서 빅리그에 데뷔한 강정호는 데뷔 첫 해 타율 0.287 15홈런 58타점의 성적을 냈다. 이어 2016년에도 타율 0.255 21홈런 62타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에서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돼 2017년 시즌을 통째로 날렸고, 2018년에 복귀했지만 3경기 6타수 2안타에 그쳤다.

지난해 피츠버그에서 65경기에 나왔지만 타율 0.169(17타수 29안타) 10홈런 24타점의 성적에 그쳤고, 결국 방출됐다.

강정호는 현재 새로운 팀을 물색 중이다. 미국 애리조나 투산에서 진행되는 KT 캠프에 참가하며 빅리그 복귀를 노리고 있다.

한편 매체는 선발 라인업으로 제이코비 엘스베리(중견수)-멜키 카브레라(좌익수)-헨리 라미레스(지명타자)-마크 레이블즈(1루수)-야시엘 푸이그(우익수)-스쿠터 게넷(2루수)-강정호(3루수)-러셀 마틴(포수)-팀 베클(유격수)을 꼽았다.

## 리디아 고 “지하철 타고 대학교 다니...아무도 못 알아봐”

“예전 스윙 찾기 위해 노력...집중하면 기회 잡을 것”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15승을 올린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23·하나금융그룹)가 비시즌 한국에서 프로골퍼가 아닌 대학생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25일 리디아 고 후원사인 하나캐피탈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재학생인 리디아 고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겨울 학기 수업을 3주 간 들었다. 리디아 고는 2015년 고려대 심리학과에 입학했다.

그는 “하루 3시간 정도 수업을 했는데 사회심리학과 마케팅개론을 공부했다”며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리디아 고는 잠시 프로골퍼가

아닌 대학생으로 돌아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는 “수업을 마치고 대학교 근처 맛집도 많이 갔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학교 가고 수업이 끝난 뒤 운동도 많이 했다. 평소에 하던 사이클과 다른 생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이 낯설고 떨렸지만 통과해서 더 좋았다.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기분이 좋다”고 덧붙였다.

리디아 고는 “학교 동기들과 돈카스나 파스타 등을 주로 먹어 다녔다”며 “원래 내 생활과 다르고, 지하철도 갈아타는 등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해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박세리 감독님처럼 유명하지 않아 알아보는 분이 없었다”며 웃었다.

리디아 고는 이번 시즌을 맞아 변화를 줬다.

하나캐피탈과 계약을 맺으며 하나금융그룹 골프단에 합류했고, 호르헤 파라다 스윙 코치와도 새로 계약을 했다.

그는 “예전부터 친한 이민지와 한 가족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설명한 뒤 “새로운 코치의 경우 주변 선수들에게 소개를 받았다. 예전 아마추어 때처럼 스윙을 하기 위해서 그때의 스윙을 기반으로 바꿔가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리디아 고는 “함께 예전 스윙 비디오나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당연히 예전 스윙과 많이 달라져서 두 개의 스윙이 섞여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의 스윙감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디아 고의 올 시즌 목표는 그린 적중률과 드라이버 샷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는 2018년 메디힐 챔피언십 이후 아직 우승이 없다.

그는 “몇 초 목표를 두는 것도 좋지만, 내가 잘 쳐도 다른 선수가 더 잘 칠 수도 있다”며 “무엇을 더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집중하고 노력하면 더 많은 버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